

네트워크 사회의 사회적 개인의 발현과 공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의제제안, 의제연결, 집단화 과정을 중심으로

조희정* · 이상돈**

이 글은 스마트 모바일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로 추동되는 네트워크 사회로의 발전 속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의미하는 사회적 개인의 실천, 신뢰와 공감에 의해 구성되는 네트워크 공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국내의 사례를 의제제안, 의제연결, 집단화 단위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술매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사회의 민주주의의 특징이 사회적 개인과 네트워크 공조로 구성됨을 밝히고 그것의 정치적 가치를 강조한다.

먼저 의제제안 과정은 속보 전달이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에 기반하여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자발성에 의해 일상적인 의제들이 노출되고, 상시적인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약한 유대가 형성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 속 개인은 상시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생산하는 과정의 중심이 된다.

다음으로 의제연결은 의제제안에 기반하여 개인 혹은 단체를 연결하거나 이슈에 따라 자원들의 연결을 도와준다. 이는 공조를 통한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개인의 자원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연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개인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의 연결을 통해 의제 확대를 이끌어낸다.

본 논문에서 세 가지 유형의 참여형태를 관통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원리를 사회적 개인과 공조라고 본다. 이는 적극적 개인의 사회적 실천을 토대로 발전되며,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사회가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가 동시에 결합되어 발전된다.

주제어 :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사회운동, SNS, 공조

*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1. 문제제기

이 글은 스마트 모바일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로 추동되는 네트워크 사회로의 발전 속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표방하는 사회적 개인의 실천, 신뢰와 공감에 의해 구성되는 네트워크 공조가 이루어지는 국내외 사례를 의제제안, 의제연결, 집단화 단위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술 매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사회의 민주주의의 특징은 사회적 개인과 네트워크 공조로 구성됨을 밝히고 그것의 정치적 가치를 강조한다.

최근 들어 트위터(twitter)를 통해 나타난 재해속보 전달, 헌혈 요청의 확산, 자살 방지 효과 그리고 투표 독려에 이르는 다양한 층위의 참여 행위는 비단 소셜 미디어의 제한적 장점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되는 의미있는 현상들이다. 즉 이들 참여행위는 ‘사회의 네트워크화’와 ‘네트워크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매개로 시민성이 발현된 긍정적인 사례로써 체계적으로 평가될 가치가 있다. 즉, 누가, 왜 움직이고 연결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변화의 구성원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연결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치로써, 사회의 네트워크화 차원에서의 키워드는 ‘연결’이다. 사회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노출되면서 경제 위기 뿐만 아니라 복지와 생활 이슈 등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즉, 기술적으로 사회 연결망이 형성되면서 개인(node)간 연결 정도가 조밀해지고 확대되고, 사회 의제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가 실시간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정부나 제도 행위자들이 독점하며 진행되던 시혜적·하향식(top-down) 정책관리 방법이 시민의 자발적·상향식(bottom-up)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그러한 시민의 참여와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렴하지 못하여 공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제도와 사회 간 균열 가능성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정부와 사회의 균열 간극을 메꾸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복지, 열린 교육, 재능 기부 등의 새로운 공조에 좀 더 많은 행위자를 체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가 필요하다.

두 번째 가치로써, 네트워크의 사회화 차원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혹은 의제)을 네트워크의 기본단위로 상정하며 단지 기술적 의미에 한정되는 네트워크가 아닌 사회적 의미에서의 네트워크 중요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6단계이론(six degrees), 좁은 세상(small world), 유력자(influencer) 이론 등이 사회현상 해석에서 핵심 이론으로 적용되며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이 사회적으로 재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기술이 단지 도구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개 기능을 함으로써 개인의 관여도를 높이고, 매개를 통한 실천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며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의 기계적 연결이 아닌 사회적 개인의 실천이 거시 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관련 이론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로써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지향방향을 검토해본다. 또한 사회의 네트워크화에 관한 관련이론인 제프리 골드팜(Jeffrey Goldfab)의 작은 것의 정치론과 이에 관련된 사례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조활동을 의제 제안, 의제연결, 집단화 단계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첫째, 의제제안 단

위에서는 단순 재해 속보 전달, 생활의제제안, 소비자 고발과 같은 일회성 제안이 우사히디와 같은 재해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네트워크 운동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소개한다. 둘째, 의제연결 단위에서는 인터넷이나 SNS의 네트워크 매개역할이 인적·기술적 매개 플랫폼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셋째, 집단화 단계에서는 단일 의제의 시민운동이 소셜 캠페인으로 형성되는 사례 소개를 통해 새로운 의제 제시가 의제연결로 전환되어 사회운동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되는 구조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어지는 제4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관련 사례에서 나타나는 의제제안, 의제연결, 집단화라는 세 단위의 사례들이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차원에서 가지는 특성으로써 사회적 개인과 공조사회 개념을 표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적 개인 개념은 이제까지의 부정적인 개인화 테제에 대한 비판으로써 개인의 일상적인 실천 자체에 사회적 함의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코직(Kosik)의 주장을 발전시킨 것이고, 공조사회 개념은 이익사회개념의 대안으로써 울리히 벡(Ulrich Beck) 등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정보사회에 대한 제반 이론이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협의민주주의의 가능성, 직접민주주의의 발현 등으로 예측되어 왔다면 실증적인 의미에서 본격화된 네트워크 사회 환경에서는 사회적 실천과 공조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체가 등장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이 글의 기존 가설과의 차이점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변화된 (혹은 새로운) 민주주의 개념이 가지는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정리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인자로서 개인이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을 평가한다. 특히, 네트워크 사회 속에서 개인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개인의 가치에 기반하여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이 중요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적 개인의 구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 사회에 대한 제도의 관성적 억압¹⁾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이후의 과제로 제시한다.

2. 온라인 사회운동론과 작은 것의 정치론

1) 온라인 사회운동의 발전과 특징

온라인 사회운동은 인터넷상의 시민사회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특히 ‘웹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시민적 권리를 찾기 위한 제반의 활동 전체’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행위자들이 의미를 창출하며 의사를 소통하고 협상하여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멜루치(Melucci 1988)의 사회운동에 대한 규정도 온라인 사회운동을 해석하기에 적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사회운동의 형태는 오프라인 중심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인터넷을 도구로 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와 온라인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안티운동과 같이 문제제기와 조직화, 해결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한다(정재철 2006, 254).

1) 제도의 관성적 억압은 새로운 네트워크 현상에 적용되는 법의 부재로 인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 원칙의 관점에서 네트워크에의 적용이 규범 일반적으로 강화되는 관성적 현상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이나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제도는 빈부의 차별없이 훌륭한 대표자를 뽑는다는 혹은 과도한 악플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토론문화를 구축하겠다는 법 원래의 취지보다는 새로운 현상의 규제에만 과도하게 치중하여 적용되는 경향이 나타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까지의 오프라인 시민운동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진출하면서 물적·인적 자원의 동원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의제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저비용 고효율의 가능성이나 의제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의 사회세력화 가능성이 높아진 온라인 사회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표1〉 기존 사회운동과 온라인 사회운동의 특징 비교

구분	기존 사회운동	온라인 사회운동
구성원리	수직적, 고정적	수평적, 연동적
주체	단체	단체, 개인
의제	거시적인 기존 의제	기존의제, 생활의제
구현방법	물리적 동원, 서명, 집회	말머리 달기, 로고와 배너 달기, 온라인 토론, 온라인 서명, 상호 링크

온라인 사회운동은 현실공간과 구별되거나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지만 개인은 온라인 공간에서 현실 세계의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영향 받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온라인에서도 각 개인이 위치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재철 2006, 281).²⁾

인터넷 집단행동과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는 첫째, 기존 사회운동과 온라인 사회운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 및 논증, 둘째, 온라인 집단행동의 발생원인,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턴의 특징, 유형 등에 대한 사례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첫째 부분의 연구로는 인터넷 활용이 집단행동에 미친 긍정적 효과와 기술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³⁾ 둘째, 사례연구로써는 카스텔(Castell 2001; 2004), 백옥인

2) 이런 의미에서 virtual reality를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이 아닌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실효’ 현실로 해석해야 한다는 김용석의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3) Barber(1998) ; Poster(2001) ; 윤영민(2000) ; 정연정(2000) ; 황용석·김재영·정연정

(2001), 임정수(2003) 등의 논의가 있다. 시기적으로는 인터넷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전반부의 연구경향이었던다면 이후에 나타나는 연구는 사례연구로 이루어지면서 좀 더 구체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이론적 논의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틀 내에서 정치참여 및 집단행동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 때문에 중동의 시민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혁명 과정에서 인터넷의 매개적 역할을 사실적으로 규명하고 이론화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 개인의 행동이 서로 다른 문턱값(threshold value)을 갖는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과 집단화로의 과정에 대한 미시 분석은 더욱 부족했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⁴⁾

2) 사회운동 구성원리로서의 ‘작은 것의 정치’

미시 분석의 이론적 단초를 제시한 연구자로는 제프리 골드팜(Jeffrey Goldfab 2011)을 들 수 있다. 그는 온라인 집단화에 대한 미시·과정 중심의 분석을 강조한다. 그가 강조하는 ‘작은 것의 정치(politics of small things)’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를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작은 것의 정치’에 대한 아렌트의 기여는 전체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써, 인간의 정치적 역량, 즉 자유의 원리에 근거하여 타자와의 현존 속에서 하나의 평등한 존재로 출연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고프만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연출하고 그런 표현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가

(2000) 참조.

4) 그라노벤테르(Mark Granovetter)나 왓츠(Duncan Watts)는 사회적 행동에서 이러한 문턱값의 중요성과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험하여 증명하고 있다.

를 분석했다. 푸코는 일상적인 행위와 상호작용을 혼용하는 권력에 대해 역사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작은 것의 정치’에서의 ‘작은’ 행위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Jeffrey Goldfarb 2011, 44-45).

‘작은 것의 정치’는 거대 이데올로기가 아닌 ‘일상생활의 잠재적 구성 요소’로써, 국가적 차원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에서의 사회운동이 만들어내는 공간과 관계에 있어서의 ‘작은 정치’를 의미한다. 과거의 신사회운동이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도에 대비되는 작은 규모의 시민운동과 달리 그가 제시하는 ‘작은 것의 정치’ 개념에서는 ‘규모’보다 ‘독립성’이 훨씬 더 강조되며, 상황 정의가 형성하는 것으로써의 ‘정치’와 제도화⁵⁾를 위한 정책 제시에 대한 상호의견 교류와 적극성이 강조된다.

즉, ‘작은 것의 정치’는 일찍이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Gattari 1998)가 제시한 ‘분자운동’과 같이 각각의 분자적인 개인이 상이한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변에 퍼져있던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횡단성에 의해 마치 눈덩이 효과처럼 대규모로 모아지면서 보다 거시적인 사회운동으로 확대발전하는 방식과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독립성에 근거하며 제도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사회운동의 구성원리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골드팝이 인터넷과 관련하여 제시한 작은 정치의 사례는 미트업(MeetUp), 무브온(MoveOn)⁶⁾, 오바마의 선거운동 등인데, 이들의 등장 이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담론이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부여되며,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미디어의 매개성이 강조된다.

5) ‘작은 것의 정치’는 대체로 기존 제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 기획이 실현되는 것도 제도 안에서이다(Jeffrey Goldfarb 2011, 197).

6) 무브온의 특징은 그것이 옵트인(opt in)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탈집중화되었다는 데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원활하게 상호작용하고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관여한다는 점에서 좀 더 평등적이고, 덜 위계적이며, 좀 더 심의적이라는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작은(사적인) 공간에서 그들은 혼용된 권력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작용한다. 물론 인터넷은 민주적일 수도 있고, 비민주적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모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민주적인 작은 정치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식자층의 공적 영역이 아닌, 카페에서의 대화나 선술집에서 벌어지는 독립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화의 즐거움을 공유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으며,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작은 것들이 능동적으로 합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Jeffrey Goldfab 2011, 10). 따라서 ‘작은 것의 정치’는 최소주의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정의를 형성하고, 자발성에 의한 (가상성을 포함하는) 상호작용을 이루며 인터넷과 같은 매개를 통해 네트워크를 통한 결과나 목적만큼 중요한 수단의 변화를 이루고, 정치의 형태가 이슈의 내용보다 중요해지는 국면을 형성한다. 이제 민주주의는 ‘구체적인 것’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3. 의제제안, 연결, 집단화의 네트워크

1) 의제제안

속보 전달이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이 형성되면서 시민의 자발성이

증가되고 일상적인 의제 노출에 의한 상시적인 반응의 약한 유대가 형성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 속 개인은 상시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형성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의 관심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데, 트위터의 리트윗(RT, Retweet), 페이스북의 ‘좋아요’ 등 단순한 클릭 한 번에도 개인의 관심에 대한 의견 표명이 이루어지고, 좀 더 적극적인 행위로서 댓글이나 폼질도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트위터의 목적은 대단히 유용하게 발휘된다(Duncan Watts 2011, 134). 이러한 모든 행위를 의제제안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공조 행위로 나타나는 개인 행위를 의제제안 사례로 정의한다.⁷⁾ 한편, 의제제안은 정보의 속도를 중심으로 재해알림 등의 속보 보도와 소비자 고발 등 생활의제 제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재해 알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재해 알림은 특히 트위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140자의 단문으로 서비스되는 트위터의 경우 재해 알림 외에도 정치적 동원이나 사회운동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제시되고 평균 8-30분 내 리트윗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확산 시간과 범위가 매우 빠르고 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장덕진·김기훈 2011 ; 이원태·차미영·양해륜 2011, 69). 즉, 트위터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유용한

7) 이러한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정보 관련 활동이 생산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 과정에서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프로슈머(prosumer)’라는 개념을, 액셀 브룬스(Axel Bruns)는 생산과 사용의 합성어로서 ‘프로두시지(produsage)’를 제안하였다(김상배 2010, 46). 인터넷에서의 지식정보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다는 지적을 고려한다면, 이 글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의제제안도 의제 ‘생산’이 아닌 ‘제안’으로 표현되는 것이 타당하다.

정보 습득과 강력한 네트워킹에 있다(Joel Comm 2009, 16). 최근 4년동안 트위터를 통해 진행된 국내외의 가장 대표적인 재해 속보 활동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트위터를 통한 재해 알림 및 속보 사례

시기	주요 내용
2007년 10월	미국, LA 소방국, 캘리포니아 화재 관련 속보 제공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지진을 가장 먼저 알림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테러 사건의 뉴스 공유(TV 뉴스는 1시간 늦게 보도됨)
2009년 1월	미국, 허드슨강에 추락한 비행기 사고를 맨처음 보도
2009년 7월	중국, 신장 위구르 유혈 사태를 가장 먼저 보도(CCTV는 하루 늦게 시위 사건을 보도함)
2009년	한국, 강남 파이낸스센터 화재 보도
2010년 1월	아이티, 지진 보도 및 구호 활동
2010년	한국, 서울 폭설 보도
2010년 9월	한국, 서울 태풍 보도
2011년 초	한국, 구제역 매몰 지도 제공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보도 : 트위터 뉴스의 2/3이 일본 지진에 대한 내용 ⁸⁾
2011년 7월	한국, 서울 폭우 보도(미디어 다음의 아고라에서 구글 맵스를 활용하여 폭우 피해 지도를 제공함)

트위터를 통한 재해 알림은 매스미디어보다 신속한 게이트키퍼(gatekeeping)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매스미디어의 경우 재해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등 공신력을 얻기 위한 신뢰성 담보 노력이 필요하지만, 개인은 재해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속보성이 더 중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재해 알림이 단순한 속보 알림을 넘어서 조직화되는 사례 또한

8) Pew Research Center, 2011. 3. 17, "Twitter Responds to Japan's Disaster"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 생활의제제안과 소비자 고발

픽스마이스트리트(www.fixmystreet.com)⁹⁾운동은 영국의 시민단체 마이소사이어티(www.mysociety.org)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2007년 2월에 시작되어 2011년 현재 32,000건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 서비스는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부실한 도로 상태를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발하면, 시정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지도서비스를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를 고발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거주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그림 1〉 '이 거리를 바꾸자'의 운영 방식



출처 : www.fixmystreet.kr/intro/intro.php

이와 같이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공조는 개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의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제제안으로서 생활이슈

9) 2010년 3월 시작된 국내 서비스는 '이 거리를 바꾸자(www.fixmystreet.kr)'로서, 영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이며,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시작되었다.

에 대한 시민고발 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비자 고발 사례는 매우 많다. 2010년 호주 콰타스(Quantas) 항공 비상착륙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나 델(Dell) 컴퓨터의 AS 불만 확산 해결 문제가 그것인데, 시민의 이의 제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광범위한 네트워크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기업 마케팅이 실패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2) 의제연결

의제연결은 의제제안에 기반하여 개인 혹은 단체를 연결하거나 공공과 인간이 보유한 동원 가능한 자원간의 연결을 통해 공조를 통한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개인이 보유한 자원은 매우 한정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제연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개인들 혹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의 연결을 통해 의제 확대는 물론 의제 해결을 유도한다.

(1) 인적 자원의 연결

① 볼런티어 매치(www.volunteermatch.org)

1994년 온라인 비영리 커뮤니티 활동으로 시작한 볼런티어 매치는 미국내의 자원봉사자 연결 서비스로서 봉사자와 해당기관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 지역명 혹은 우편번호와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항목을 검색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트위터, 유튜브 등에도 채널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방위 네트워크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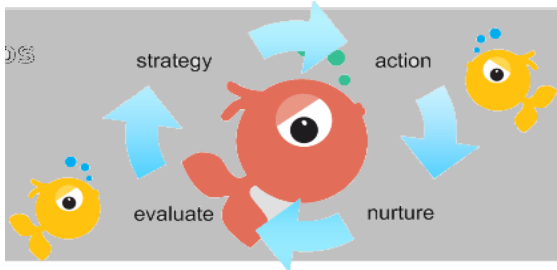
네트워크 활동을 실시간 지도로 제공하는 라이브맵(livemap) 서비스에 의하면, 2011년 7월 7일 현재 미국 전역에서 전체 참여 건은 5,505,006건이며, 1시간 평균 97건의 요청이 들어오고, 월평균 방문자

는 85만 명에 이른다. 2009년부터 지도 서비스와 2010년부터 아이폰을 통한 모바일 연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② 소셜 피쉬(www.socialfish.org)

소셜 피쉬는 소셜 미디어 연결서비스로서, 2006년 블로그 서비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셜 피쉬는 사회운동가들이 링크트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회원들과 만나는 효과적인 조직화 방법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블로그 연결과 블로그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소셜 네트워크 지원 활동을 한다. 소셜 피쉬는 전략→실천→성숙→평가→전략에 이르는 선순환 전략을 수립하여 사회적 CRM(social-CRM) 활동을 돕는다.

〈그림 2〉 Social Fish의 활동 전략



출처 : www.socialfish.org

③ JUMO

2010년 3월, 페이스북 창업자 크리스 휴즈는 페이스북이나 자신이 관여했던 오바마 캠페인에 이어 세 번째 소셜 미디어로서 ‘주모(JUMO.com)’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아프리카어로 ‘다같이 함께’라는 의미의 주모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자와 비영리기구를 연결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주모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페이스북 커넥트’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개별 페이지를 가진 이슈별, 프로젝트별 ‘이슈’를

선택해 관심 있는 사회운동을 찾을 수 있다. 페이스북과도 연동돼 자신과 연결된 친구들과 관련 이슈들을 공유할 수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미국 내 비영리기구 3,500개가 주모닷컴에 가입돼 있다.¹⁰⁾

(2) 기술·물적 자원의 연결

①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술 지원

‘넌프로핏 테크놀로지 네트워크(NonProfit Technology Network, www.nten.org/ntc)’는 2000년에 공식 출범했으며, 시민단체를 위한 기술지원을 목표로 기술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링크트인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으며, webinar(web+seminar)라는 정기적인 웹 세미나를 통해 2천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의견을 교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기술지원을 원하는 시민단체가 등록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해주는 ‘테크수프(TechSoup, home.techsoup.org)’도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에어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크수프’는 ‘넷스퀘어드(NetSquared) 프로젝트’를 통해 비영리단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비영리단체를 위한 기금을 모으고 단체를 알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웹 2.0 기술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준다(Tara Hunt 2009, 39).

② 소셜 펀딩

소셜 미디어 활성화를 계기로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 기부나 후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변화이다. 즉,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의제에 쉽게 지원함으로써 재능 기부나 소셜 펀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조가 가능해지고 있다. 소셜 펀딩 펀드의 경우는 자신의 아이디

10)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 공익적 SNS ‘주모닷컴’ 선배.” 『국민일보』, 2010년 12월 1일자 ; Rachel Botsman(2011, 81) 참조.

어나 프로젝트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후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후원해준 사람에게 보상으로 돌려주는 소셜 플랫폼 서비스이다.¹¹⁾ 단순 기부나 투자 이익, 수익 창출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의 공유와 프로젝트의 실현에 더 의미를 두고 있으며, 제공하는 보상이 금전적인 보상이 아닐지라도 프로젝트 후원에 있어서의 자부심과 보람, 지식의 경험과 교류를 통한 자기 발전 등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서포터들의 참여를 토대로 발전하고 있다.

3) 시민 집단화

소셜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은 개방적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관계 맺기로 정의될 수 있다. 강한 유대보다는 약한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는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사적·공적 정보의 현시성을 통한 공유와 참여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김 현·이현주 2011, 11). 사회적 개인의 의제제안 실천과 물질·인적 자원의 동원이 연결되는 의제연결이 공조의 공명 현상이 이루어지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시민 집단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작은 의제 혹은 일상적 의제로서 단일 의제가 조직화되거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하는 소셜 캠페인 등은 가장 대표적인 시민 집단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 단일 의제 조직화

단일 의제 조직화는 과거 시민운동에서의 거시적인 경성 의제가 아니라 어떤 일든 하나의 사건이 제시되면 급속도로 전파되는 속성을 갖는다. 수동적 의미에서의 시민이 기부하면 그 이후의 기부금의 쓰임 과정을 알 수 없다거나 물질적 기부에만 한정되는 현상이 아니라 모

11) “새로운 후원 문화 소셜 펀딩의 이해,” 『연합뉴스』, 2011년 7월 15일자

든 과정이 온라인에 공개되고 물질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도 가능해진다. <표3>에 나타난 사례는 이와 같은 단일 의제 조직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표3> 트위터를 통한 공조 운동 사례

시기	주요내용
2008년 4월	이집트에서 미국 대학생 제임스 벅(James Buck)이 반정부 사진으로 인해 체포된 사건 알림. 미국의 지인과 정부의 노력으로 다음날 석방됨
2009년	Twestival을 통한 국제 공조 캠페인
2009년	한국 : 트윗 나눔운동, 트위터를 이용한 기부 서비스(트윗 한 개당 1원, 2009년 11월 29일 기준 402명 참여, 1,039만원 모금)
2009년	오노 요코의 ‘월요일에 고기 안먹기 운동’ 전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로 전환
2009년	한국 : 구순구개열 어린이 돕기 운동을 통해 140명의 어린이가 도움, 아나바다 장터, 독거노인과 고아원에 김치 나누기행사(100% 트위터 자원봉사자)
2010년 2월	한국 Rh-O형 어린이 헌혈 도움 후 헌혈 트윗 일상화
2010년 9월	한국 : ‘10월의 하늘(October Sky, www.nanumlectures.org)’ 재능기부운동(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30개 지역소규모 도서관 과학 콘서트 운동, 10시간에 300명 기부) 2011년 8월에 2차 운동 진행(10월 29일, 42개 도서관에서 진행)
기타	적십자, 그린피스, 아메리칸 캔서 등의 시민단체들의 운동, onewater.com, www.charitywater.org, www.donorschoose.org, 미아·강아지 찾기, 재능 기부 운동과 열린 교육 운동으로서 TED, OCV / KOCW, SNOW, open university 등

트위터의 실시간 속보 보도를 조직화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프리카의 재해 속보 네트워크인 우샤히디(www.usshahidi.com)¹²⁾가 있다.

‘우샤히디’는 재난을 관리하는 오픈소스의 범용 플랫폼으로서 집단 지성+위치정보+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 이메일, 트위터 등 다

12) 우샤히디는 ‘증언(testimony)’, ‘목격’(스위힐리어)을 의미함

양한 채널로 취합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도 위에 시각화하며, 동명의 모바일 앱¹³⁾도 제공한다. 우샤히디는 2007년 6월, 미국 워싱턴 로펌의 변호사이자 Enablis(남아프리카 기업가 지원 기구)의 고문변호사 그리고 블로거인 오리 오콜로(Ory Okolloh)가 TED 강연¹⁴⁾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요청한 것에 시작하였다.

이미 아프리카에는 Afrigator 라는 블로그 포털이 있었는데,¹⁵⁾ 오콜로는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어야 하며, ‘발빠른 치타 세대’가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인에 대한 요구를 표명하는 사이트(www.mzalendo.com)를 운영하였다. 2007년 12월, 오콜로는 케냐 대선의 선거기간 중 발생한 인종간 폭력 사건을 자신의 블로그(‘Kenyan Pundit’)를 통해 취합하였는데, 정부가 미디어 폐쇄조치 시행하였기 때문에 블로그가 핵심 미디어로 부상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아프리카의 표준 장치라 할 수 있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기술을 구성하였으며¹⁶⁾ 트위터 등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심을 쏟는 것은 사건 발생 후 최초의 세 시간이 의미있다는 분석 하에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노출시키고 그들에게 정보를 매기게 하고, 정보 제공자들의 접수를 매기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의사가 반영되고 정보의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게 되었다.

우샤히디의 주요 활동으로는 멕시코의 선거부정 사건(2007년), 인도 선거 지원(2009년), 아이티 지진 사태 지도(2010년)¹⁷⁾, 러시아 산불 지

13) itunes.apple.com/kr/app/ushahidi-ios/id410609585?mt=8

14) http://www.ted.com/talks/lang/eng/ory_okolloh_on_becoming_an_activist.html(2007년 6월)

15) 당시 웹사이트 호스팅 비용은 20\$였으며, 스와힐리어 위키피디아의 경우, 5천만 명의 스와힐리어 사용자 가운데 단 5명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었다.

16) http://www.ted.com/talks/lang/eng/erik_hersman_on_reporting_crisis_via_texting.html(2009년 2월)

17) 미국 Knight Foundation의 보고서 *Media, Information Systems and Communities : Lessons from Haiti*에 의하면 이동통신사, 구호단체, 신문/방송 미디어는 4636번호를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공공보건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이 외에도 인명구조, 건물파손, 질병, 범죄 정보가 제공되었다.

도(2010년), 영국 런던 지하철 파업 지도(2010년, tubestrike.crowdmap.com), 미국 워싱턴 대폭설 도로 제설 작업 지도(2010년, snowmageddoncleanup.com), 칠레 지진 지도(2010년, chile.ushahidi.com), 케냐 국민투표 모니터링 지도(2010년, uchaguzi.co.ke), 미국 아틀랜타 범죄 지도(2010년, crime.mapatl.com) 등이 있다. 그 외에도 DR 콩고 사태 모니터, 알자지라의 가자 지구 폭력사태 추적 등에도 우샤히디 플랫폼이 사용되었다.

우샤히디의 주요 사례로 소개되는 엠페디그리 사례의 경우는 2007년, 가나의 공공정책조사관 브라이언 시몬스가 가나의 심각한 의료문제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이들이 처방받는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을 고민하다 당시 서아프리카에서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던 휴대폰에 주목하였다.¹⁸⁾ 2008년, 시몬스와 그의 동료들은 의약품의 복제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엠페디그리'라 불리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오래지 않아 엠페디그리의 레이더망에 다른 대륙의 (인도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복제약을 생산하는) 거대한 국가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시몬스는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 타타그룹과 인도 정부의 핵심 두뇌 집단인 기업업무부와 함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구축하였다.

우샤히디는 인명구조, 건물파괴, 범죄, 질병 등에 관한 정보를 목격한 시민이나 자원봉사자, 구호단체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실시간 제보함으로써 일종의 '위기지도' 역할을 하였다. 시민의 고발정신을 고양시켜 위기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분쟁의 위키피디아'라고도 평가받았다. 클레이 셔키(Clay Shirky)는 이와 같은 성공은 기술+관대함(여유시간+여유재능, 창조하기+공유하기 등의 (경제적인 것 외에 혹은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18) 2008년 5월, 가나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870만 명 돌파하여 보급률 50%를 넘어섰고 있었다.

않는) 내적 동기)으로 이루어진 '인지잉여(cognitive surplus)'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¹⁹⁾ 관대함을 모으는 기술방식의 승리라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가벼운 흥미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만들어내지만 사회전체가 향유할 수 있다는 의미의, 시민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우샤히디를 확장하여 응용할 수 있는 사건으로는 인구 조사정보, 도시범죄현황, 교통사고현황, 명절 교통현황, 입시지원정보 등이 가능하다.

(2) 소셜 캠페인 포털

마이소사이어티는 'TheyWorkForYou'(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 'WhatDoTheyKnow'(정부 부처의 종합 정보 제공, 부처별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제공), 'WriteToThem'(정치인에게 메시지 발송, 2011년 7월 현재 20만 명 참여), 'Mapumental'(구직, 교통, 관광 등에 대한 생활정보를 지도로 제공), 'PledgeBank'(글로벌 개인 서약 운동), 'No 10 Petitions Website'(총리실에 시민 제안 보내기, 2011년 7월 현재 1천 2백만 명 참여), 'Democracy Club'(비영리 정치운동, 지역별 후보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 지원), 'HearFromYourMP'(정치인과의 의견 교류), 'GorupsNearYou'(거주 지역 근처의 지역 활동 단체 정보 제공)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시민운동 포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이소사이어티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각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상황을 제공받거나 공유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가 따로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종합적인 시민운동 서비스

19) http://www.reed.com/talks/lang/eng/clay_shirky_how_cognitive_surplus_will_change_the_world.html (2010년6월)

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²⁰⁾

4. 사회적 개인화의 출현과 공조사회 테제

3장에 제시한 의제제안, 연결, 집단화의 사례들은 사회적 개인의 실천에 의한 공조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각기 분리된 것이 아닌 중첩적인 진행과정에서 행위자로서의 사회적 개인과 구성원리로서 공명과 공조는 새로운 사회의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

〈표4〉 의제제안, 연결, 공조의 사례와 특징

구분	사회적 개인의 관심→실천→공명→공조 사회화
의제제안	재해보도, 생활의제제안, 소비자/시민 고발(픽스 마이 스트리트, 상품 고발 및 불매 운동)
의제연결	RT, 인적·물적 자원 연결(볼런티어매치, 소셜 피쉬, JUMO, 넌프로핏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테크 수프), 소셜 펀딩
집단화	헌혈, 재능 기부, 채식 운동, 시민단체 운동(우사히디), 열린 교육 운동, 소셜 캠페인(마이 소사이어티)

1)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관심’

시민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참여행위는 매우 중요하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형태로 이슈가 존재할 때, 시민들은 좀 더 적극적인 공조행위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관련된 이슈가 시민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하는가이다. 트위터에 수혈을 요청하는 트윗을 다시 리트윗하는 행위는 매우 단순한 행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20) 각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www.mysociety.org/projects 참조

행동 이면에는 개인의 관심과 사회적 실천이 녹아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관심’이란 개인이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관여로 얽힌 사회 관계망 속에서 개인이 실천적으로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 즉, 관심은 개인적 주체성의 발현이자 동시에 사회적 발현이다. 코직에 의하면, 주체는 객관적 관계들을 체계에 의해 규정한다(Kosik 2002, 117-119). 그러나 주체는 자신의 활동 속에서 관계망을 형성하는 개인으로 행동한다(이상돈 2006, 43). 코직이 말하는 관심은, 첫째, 사회적 개인이 그의 관여와 공리적 실천을 기초로 하여 사회관계의 체계 속에 얽혀 있으며, 둘째, 기본적인 형태로써 배려와 고려로 나타나는 개인의 활동이며, 셋째, 무차별성과 익명성으로 나타나는 활동의 주체이다(Kosik 2002, 119).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웹에서 소셜 미디어 등의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특정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연결을 전제로 한 행위이다. 또한 이슈를 제기하는 행위는 이미 공리적 실천을 전제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가 이후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목적을 위해 집단을 구성하고 동원하지 않아도 공조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가 네트워크 사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관심(혹은 하이데거식의 배려)은 추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관찰되기 어려운 개념이며, 실제 개인의 실천적 관심이 외부적으로 관찰되기 위해서는 결국 직접적인 행동으로 발현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인식적 실천 행위가 미디어를 소비하고 미디어를 통해 실천함으로써 개인의 관심이라는 개념이 존재론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러한 실천 행위가 물화된 형태로 관찰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심을 타인에게 보내는 커뮤니케이션 통해 특정 목적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설득과정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일련의 행위와 과정이 관찰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

은 관찰된 현상과 사실을 통해 기존과 다른 형태의 실천 행위로서 공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의 등장 이후 ICT에 의해 기존의 공동체 중심 사회가 개인화 사회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개인화로 인해 공동체가 붕괴되고 사회자본이 감소함으로써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온라인의 수많은 커뮤니티가 다양한 관심사와 이슈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으로 다원적인 가치를 공유하거나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과소평가된다.

이는 비판적 의미에서의 기계적인 분열이 아니다.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티의 출현은 개인화의 근거가 아니라 기존 공동체에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추구하는 개인의 출현을 의미하며, 이들이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울리히 벡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리는 가치 체계의 붕괴가 아니라 가치체계의 갈등을, 사회와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그 양식이나 내용면에서 극히 상이한 두 가지 이미지를 마주하고 있다’라고 말한다(Beck 1995, 31).

그동안 개인화에 대한 부정적 논의에 의해 개개인의 삶의 흔적을 상세히 분석하기 어려웠다. 공동체에의 귀속없이는 모임 문화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조차 실천하기 어려웠다. 또한 집단과 조직에서 위계적 질서와 종속을 강요당하고 개인의 이익과 거리가 있는 봉사활동을 했다(Beck 1995, 31). 정당, 시민단체, 종교단체, 지역공동체는 개인이 속한 집단으로 파악되고, 그 안에서의 개인은 집단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한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개인은 과거처럼 집단을 통해서만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 많은 위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하위문화와 같이 소수의 문화적 주체

로 활동하는 개인, 1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개인을 중심으로 느슨한 유대의 연결망을 구성하는 개인의 관여(empowerment)도 확장되고 있다.

과거의 정치구조가 개인을 보호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제도의 역할에 주목하였다면 근대 정치 이후 주목받지 못했던 개인의 역할과 능력이 중요한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즉, 이제 더 이상 사회를 유지하는 안정적 역할을 제도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네트워크를 이끌어가는 개인이라는 주체가 중요해진 것이다. 네트워크 내에서는 모든 행위자가 동등한 위치 존재를 획득할 수 있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인의 존재가치의 회복은 스마트-소셜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연결될 수 있다.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이 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수많은 민주주의론을 양산해내었다면 스마트-소셜에서의 새로운 민주주의론은 기술을 통한 사회적 질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개인화의 증대가 민주적 참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회발전에 저해된다는 부정적 개인화 테제는 스마트-소셜 사회에서의 수많은 개인의 참여와 공조를 해석하기 위해 사회적 개인화 테제로 변화되어야 한다. 스마트-소셜 사회 이전까지의 개인이 단절되고 적극적 사회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보이지 않는 개인이었다면 스마트-소셜 사회에서의 개인은 단순한 글과 콘텐츠 하나를 게시함으로써 이미 사회적 실천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사회적인 개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소셜 사회에서의 개인은 '개인화의 미덕(virtue of individualization)'을 실천할 수 있는 개인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2)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공조사회화

다음으로 이익사회의 확대가 물질적 이익에 집중함으로써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파편화를 촉진한다는 이익사회화 тезе는 사소한 공감과 약한 유대의 신뢰가 누적되어 공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공조사회화(cooperative socialization)' тезе로 변화되어야 한다. 개인화의 미덕을 갖춘 개인은 과거와 같은 거시적 사회운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거나 공동체에 소속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는 않지만, 약한 유대와 공감 그리고 네트워크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공조를 표시한다. 이러한 작은 공조는 일시적이거나 책임의 결여 때문에 소멸되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연결됨으로써 누적된 공조효과로 연결된다.

울리히 벡은 사회학자들이 개인화의 가속화와 함께 기꺼이 타인과 공존하고 믿고 의지하려는 의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점점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젊은 세대의 개인화는 자기조직화 경향을 가지며 기존의 제도들에 대한 거부감과 과거 정당, 종교(교회, 성당), 시민단체(로타리클럽 등) 전통적 조직을 통한 공조를 포함한 조직활동에 거부감을 가진다(Beck 2000, 25). 달톤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구의 전후세대들은 경제적 이득과 물리적 고려대신에 환경보호, 사회적 평등, 소수자 권리보호,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이슈들을 정치적 어젠다로 채택함으로써, 물질적 가치를 중시했던 '구(舊)정치'의 틀과 관행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Dalton 2008, 14). 잉글하트는 거대 공중들이 근대화 시대에 자신들을 동원했던 구(舊)노선의 과두제적 정치조직을 떠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광범위한 엘리트에 도전적인 정치행위형태에는 훨씬 더 활동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말한다(Inglehart 1997, 307).

이에 대해 달턴은 잉글하트가 역설한 새로운 정치행위형태 즉, 새로운 직접행동의 형태들은 공익집단への 참여, 정치인 직접적인 접촉, 논쟁적인 활동 등을 포함한다고 말한다(Dalton 2008, 81). 즉 과거의 정치조직을 위시한 정치시스템의 하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참여행위에 집중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9, 127)의 디지털시대 한국의 시민의식구조 분석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은 사회참여와 시민활동에 대한 질문에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향’이 평균값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 지역, 종교, 시민단체 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던 시민들의 공조가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사라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우려했던 현상은 사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한 것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의 가치의식과 참여방식 변화는 기존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디지털시대의 시민의식과 참여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무경계성은 시민으로 하여금 특정 한 국가의 법과 규범에 덜 구속받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시민적 참여의 비용을 크게 낮추어주고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52). 온라인 공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든 공통적인 것은 비용의 절감에 따른 다양한 참여 그리고 새로운 시민의식의 형성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베넷 등은(Bennett·Wells·Rank 2008, 1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59 재인용) 현재 미국의 시민의식이 의무적 시민의식에서 실현적 시민의식으로 시민적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 5〉 의무적 시민과 실현적 시민의 특징

의무적 시민	실현적 시민
정부에의 참여에 대한 강한 의무감	정부에의 참여 의무감 약화
투표는 핵심적인 민주적 행위	라이프스타일 정치에 초점 : 정치적 소비자주의, 자발성, 사회적 활동주의
지도자와 미디어에 대한 높은 신뢰 : 뉴스에 따라 이슈와 정부에 대한 정보 수용	미디어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 : 뉴스에 등장하는 정치문제에 비교적 덜 추종
사회조직, 이해단체, 정당에 대한 참여 : 대중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행위를 위한 비교적 느슨한 네트워크에 참여 :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시민의식의 변화는 근대 사회의 ‘표준화된 생활방식(전기)’에서 ‘선택된 생활방식(전기)’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개인의 삶에서 결혼, 육아, 낙태, 연애와 같은 다양한 선택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규범과 그러한 규범에의 종속을 강조하는 종교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수많은 선택을 공동체적 가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의 개인은 과거처럼 공동체를 통해서만 사회생활하지 않는다. 하위문화와 같이 소수의 문화적 주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개인의 가치 실현을 위해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와 같은 1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개인이 중심으로 연결된 느슨한 조직형태를 가진 일종의 연결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사회의 공조는 과거 공동체에 기대했던 준거들을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 속에서 찾기도 하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공동체가 아닌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찾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의 삶의 변화가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공조에 기반이 된다. 실제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효능감을 체득할 수 있는 행위들에 집중함으로써 끊임없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망을 설정해나간다. 이것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사회적 실천과 참여 형태이며 현재 이

해하고 있는 공조라는 틀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공조의 특징은 과거의 제도에 의한 공적 부조와 달리 시민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부조에 의해 출발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적 부조는 국가 혹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사회사업,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는 시민은 일방적인 시혜자로 규정되어 수동적 존재에 머물고 말았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시민의 자발적인 공조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과거의 시민 개개인은 보유하지 못한 동원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이슈를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대부분일지라도 개인의 자발적 행위가 사회 자원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6〉 소셜 미디어의 기능 중심 분류와 공조의 특징

사용기술	내용	사례
소셜네트워킹 (Social networking)	사용자 인맥을 관리하고 업무에 적합한 인재와 재능을 탐색에 활용	싸이월드, 페이스북, myspace 등
소셜협업 (Social collaboration)	사용자들이 공공의 목표를 갖고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	각종 위키, 블로그, 클라우드소싱 도구 등
소셜퍼블리싱 (Social publishing)	개별 사용자가 보유한 콘텐츠를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집적	유튜브, 플리커 등
소셜피드백 (Social feedback)	사용자들이 접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후기와 개선의 건을 제시	아마존, Del.icio.us, 디그, 유튜브 등

출처 : 권순목·신창목 외(2010) 재구성

이러한 시민의 자발적 공조 행위는 사회자본의 성숙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국가 혹은 공공에서 포괄하지 못한

다양한 계층-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 등-이나 영역들에서 공적 부조의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의 공조 행위에 대한 정책적 접근으로 몇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기부·모금, 정보 공유 운동 등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공조 행위를 ‘온라인 나눔’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0)에서는 온라인 나눔을 ‘웹사이트나 이메일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유무형의 재산 등을 나누는 것’으로 정의하고, 온라인 나눔의 특징을 다음의 <표7>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7> 온라인 나눔의 특징 및 관점별 장점

나눔활동 단체 관점	특징	참여자 관점
다양한 나눔정보를 쉽게 전달	정보전달 용이	취향에 맞는 나눔활동 참여
적은 시스템 관리비용 투입	관리비용 감소	원하는 활동에 간단한 절차로 참여
투명한 관리	실시간 피드백	신뢰도 및 참여 효능감 제고
다양한 회원의 관리 용이	의사소통 용이	맞춤형 서비스 수혜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4)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온라인 공조행위를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의 공간적 이동 이상의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이며, 다만 기존의 물적 기부행위에서 지식과 노동 등으로 기부 혹은 나눔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측면의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앞의 사례들과 같이, 네트워크 사회의 공조는 단순히 공간의 변화가 아닌 네트워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기술적 편의성에 기반하여 기부 혹은 모금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기존의 공조 행위를 온라인화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의 일상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5. 결론 :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구현

1) 부정적 개인화와 이익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민주주의론

과거에는 제도와 권력의 소외 계층으로서 수동적으로 평가되어오던 개인은 소셜 미디어 확산을 계기로 적극적이고 사회적인 개인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민주주의에서 정적으로 평가되던 개인은 동적이고 네트워크화가 가능한 존재로 움직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운동은 부정적 의제 중심이 아닌 긍정적 의제 중심으로 결합되어 부정이 아닌 인정과 자발성의 증가라는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소비하는 ‘방식’을 새롭게 조명하는 레이첼 보츠먼이 소개하고 있는 ‘협동 소비(collective consumption)’ 사례는 임금질량, 유희 생산력, 공공재에 대한 인식, 타인간의 신뢰를 근본원리로 하며 개인주의와 커뮤니티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Rachel Botsman 2011). 특히 협력이 꼭 개인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체감하게 하는 최근의 소셜 미디어 의제 확산 과정은 이러한 협동소비, 적극적 개인, 긍정적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의 의제제안과 연결 그리고 집단화가 오프라인의 실제 정책에 미치는 효과나 지속가능성 혹은 진정한 네트워크 구현에 성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관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부, 정당, 학교, 언론은 이렇게 무섭게 네트워크화되어 가는 개인과 의제연결에 의해 기존의 가치를 훼손당하고 새

로운 정체성 정립에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사익과 공익이 서로 의존적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개인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도,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위키피디아에서 항목을 수정하여 올리는 것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제도나 조직의 반응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새로운 개인이 더 책임감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페이스북 창업자 크리스 휴즈의 지적처럼 이들을 연결하는 일관된 특성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협력적인 세상이 되도록 앞장선다는 점이다.

2) 제도의 관성적 억압 강화에서 전진적 소통과 전향으로

민주주의적 추동요인(push factor)에 대한 제도의 ‘관성적 억압(inertial suppression)과 지체’는 개인의 사회참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회와 제도간 균열을 조장하는 핵심 원인이다. 과거 정치이론에서는 권위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의 구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권위주의 사회에서의 억압은 비민주적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술에 의한 사회변화의 추동과정에서 제도는 언제나 관성적으로 과거의 제도를 유지하려는 목적 하에 신기술로 나타난 사회 각 부분의 다양한 변화를 뒤늦게 수용하고 더디게 적용하는 지체 현상을 보여왔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 틀에서 수용할 수 없는 변화의 틀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기본권과 기본 가치에 대한 훼손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이나 중동의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사형이나 중형 처벌과 같은 강력한 제재로 나타났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상적 감시의 확대와 제도의 억지 적용이라는 폐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도가 사회변화보다 늦거나 예측제도의 제시불가능성이

라는 필연적인 제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과 기존 권력 유지라는 필연적 요인에 의해 촉진되어 나타나는 반민주주의적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반민주주의적인 제도의 관성을 단절시키고 변화의 다양성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의 반응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조건이 전제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 새로운 거버넌스론으로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론을 도모할 수 있고, 네트워크의 사회화를 위한 과제로서 오픈 소스 제공과 네트워크 형성의 플랫폼을 구현하여 ICT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복지를 도모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능동적인 정책 추진 과정 또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수평적(공유) 복지를 지향해야 하며, 사용자의 알권리(프로세스 개방성과 투명성)와 네트워크 기본권을 구현하여 스마트한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2011년 9월 29일 접수, 2011년 11월 5일 확정)

참고문헌

- 강원택. 2007. 『인터넷과 한국 정치 :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서울 : 집문당.
- 권순우, 신창목 외. 2010. 『SERI 전망 2011』.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김상배. 2010. “집합지성보다는 커뮤니티? : 한국사의 맥락에서 본 인터넷 문화의 특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7권 4호. 45-90.
- 김은미·이동후·임영호·정일권. 2011. 『SNS 혁명의 신화와 실제 : ‘토크, 플레이, 러브’의 진화』. 파주 : 나남.

- 김승연. 2001. 『시민운동 단체의 온라인 활동에 관한 연구 : 홈페이지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 현·이현주. 2011. “소셜 미디어 이용자 집단의 정치적 인지구조의 특징.” 『언론정보연구』48권 2호. 5-43.
- 류석진·조희정. 2009.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정치제도와 시민사회 변화 연구』. 서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민경배. 2002. 『정보사회에서의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인혁·이유진 외 한국 트위터 사용자들. 2010. 『모두가 광장에 모이다 : 소셜이 바꾸는 멋진 세상』. 서울 : 아이앤유.
- 신진욱. 2008. 『시민』. 서울 : 책세상.
- 윤영민. 2000. 『사이버공간의 정치』. 서울 : 한양대출판부.
- 이상돈. 2006. 『온라인 뉴스 수용자의 저널리즘적 실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규. 2009. 『트위터 : 140자의 매직』. 서울 : 책보세.
- 이원태·차미영·양해륜. 2011. “소셜 미디어 유력자의 네트워크 특성 : 한국의 트위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48권 2호. 44-79.
- 장덕진. 2011. “트위터 공간의 한국 정치 : 정치인 네트워크와 유권자 네트워크.” 『언론정보연구』48권 2호. 80-107.
- 장덕진·김기훈. 2011. “한국인 트위터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학.” 『언론정보연구』48권 1호. 59-86.
- 장용호. 2002. 『사이버공동체 형성의 역동적 모형』. 서울 : 집문당.
- 장우영. 2006.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 : ‘충선연대’와 ‘노사모’의 사이버 액티비즘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제13권 제3호. 143-164.
- 정영정. 2000. “미국 시민이익집단 활동과 인터넷 이용.” 『한국정치학회보』34집 4호. 337-358.
- 정영수·이윤희. 2010. “디지털 시대의 나눔문화 활성화 전략.” CIO Report Vol. 25.
- 정재철. 2006. “온라인 시민사회운동의 공론화 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안티

- 닉스 게시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3호. 253-285.
- 조희정. 2009. “네트워크 사회의 선거운동 전략에 관한 연구 :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5권 2호. 89-121.
- 조희정. 2011. “2011년 중동의 시민혁명과 SNS의 정치적 매개역할.” 『한국정치연구』 제20권 제2호. 309-337.
- 조희정·강원택. 2010. 『디지털 정치조직의 출현과 e-거버넌스의 미래』. 서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조희정·강장묵. 2008. “네트워크 정치와 온라인 사회운동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3호. 311-332.
- 조희정·이원태. 2010. “소셜 미디어의 선택적 적응과 정치발전 : 2010년 영국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2호. 141-179.
- 홍성욱·백옥인 엮음. 2001. 『2001 싸이버스페이스 오디세이』. 서울 : 창작과 비평사.
- 황용석·김재영·정연정. 2000.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정치환경』.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팔란티리 2020. 2008. 『우리는 마이크로 소사이어티로 간다 : 세상의 변화를 읽는 디테일 코드』. 서울 : 웅진윙스.
- Beck, Ulrich. 1995. Die feindlose Demokratie. Reclam, Ditzingen. 정일준 역. 2000.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서울 : 새물결.
- Bimber, Bruce. 2003. Information and American Democracy : Technology in the Evolution of Political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원태 역. 2007. 『인터넷 시대 정치권력의 변동 :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진화』. 서울 : 삼인.
- Botsman, Rachel·Rogers, Roo. 2011. What's mine is yours. Harper Collins Publishers. 이은진 역. 2011. 『위 제너레이션』. 서울 : 푸른숲.
- Comm, Joel. 2009. Twitter Power : how to dominate your market one tweet at a Time. Wiley&Sons, Inc. 신기라 역. 2009. 『140자로 소통하는 新인터넷 혁명 트위터』. 서울 : 예문.

- Dalton, Russell. 2008. Citizen Politics :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hatham House Pub. 서유경 역. 2020. 『시민 정치론 :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 서울 : 아르케.
- Java, Akshay · Song, Xiaodan · Finin, Tim · Tseng, Belle. 2007. "Why We Twitter : Understanding Microblogging Usage and Communiti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Proceedings of the 9th WebKDD and 1st SNA-KDD 2007 workshop on Web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56-65.
- Goldfarb, Jeffrey C. 2006. The Politics of Small Things : The Power of the Powerless in Dark Tim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충훈 역. 2011. 『작은 것의 정치』. 서울 : 후마니타스.
- Hunt, Tara. 2009. The Power of Social Networking: Using the Whuffie Factor to Build Your Business. Crown Business. 김지영·이경희 역. 2010. 『우피경제학 : 관계, 명성, 평판의 힘』. 파주 : 21세기북스.
- Kosik, Karel. 1970. "La dialectique du concret." 박정희 역. "구체성의 역사." 박재환 역. 2008.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 한울.
- Peter D. HART RESEARCH Associates. 2006. VolunteerMatch User Study.
- Pew Research Center, 2011. 3. 17, "Twitter Responds to Japan's Disaster"
- Reynolds, Glenn. 2006. An Army of David. Thomas Nelson, Inc. 광미경 역. 2008. 『다윗의 군대, 세상을 정복하다 : 인터넷 시대의 유쾌한 반란, 세상을 바꾸는 '개인의 힘』. 서울 : 북캠프.
- Rheingold, Howard.. 2002. Smart Mobs : The Next Social Revolution. Golden bough. 이운경 역. 2003. 『참여군중 :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무장한 새로운 군중』. 서울 : 황금가지.
- Rifkin, Jeremy. 1995. The end of work. Tarcher. 이영호 역. 1996. 『노동의 종말』. 서울 : 민음사.
- Salkowitz, Rob. 2010. Young World Rising : How youth,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are changing the world. John Wiley & Sons. 황희창 역. 2011.

- 『영월드 라이징』. 서울 : 한빛비즈.
- Shirky, Clay. 2008. Here Comes Everybody. Brockman. 송연석 역. 2008. 『끌리고 끌리고 들끓다』. 서울 : 갤리온.
- Shirky, Clay. 2009. 6. “어떻게 소셜 미디어는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www.ted.com/talks/lang/kor/clay_shirky_how_cellphones_twitter_facebook_can_make_history.html
- Shirky, Clay. 2010. Cognitive Surplus, Brockman Inc. 이충호 역. 2011. 『많아지면 달라진다』. 서울 : 갤리온.
- Tapscott, Don. 2008. Grown Up Digital : How the Nex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McGraw-Hill. 이진원 역. 2009. 『디지털 네이티브』. 서울 : 비즈니스북스.
- Trippi, Joe. 2004.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 Democracy, the Internet, and the Overthrow of Everything. Harper Collins Publishers. 윤영미 · 김정수 역. 2006. 『혁명은 TV로 중계되지 않는다』. 서울 : 산해.
- Watts, Duncan J. 2011. Everything is Obvious. William Morris Endeavor. 정지인 역. 2011. 『상식의 배반 : 뒤집어보고 의심하고 결별하라』. 서울 : 생각연구소.
- www.ted.com/talks/lang/eng/ory_okolloh_on_becoming_an_activist.html
- www.ted.com/talks/lang/eng/clay_shirky_how_cognitive_surplus_will_change_the_world.html
- www.ted.com/talks/lang/eng/erik_hersman_on_reporting_crisis_via_texting.html
- “What is the Ushahidi Platform?”(<http://vimeo.com/7838030>)

Social Individual and Network Cooperation in the Network Society:
Focus on Issue Proposal, Issue Link and Grouping

Hee Jung, Cho · Sang Don, Lee

This paper takes the issue of network collaboration which is made with the social trust and sympathy, the practice of social individual these are driven in the process of networked society, smart mobile and social media. And study the relative local and overseas cases through the issue proposal, contact, analysis of group unit. This work finds and suggests the political value and the nature of networked society in democratic based is composed of the social individual and network co-operation.

First, the issue proposal is developed by the networked environment that makes possible fast information transmission. With this process, these general issues are exposed by the spontaneity of civic, And an individual in networked society is being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center of acquisition and production that is connected by the network.

Second, based on the issue proposal, the contact connects individual or group in issue bases. IT gives more effective result by mutual-assistance. The resource of individual is fairly limited. That's why the mutual connection of individual and group make possible to bring the extended issue.

In conclusion, these three types of approach to access new democracy are the result of collaboration with social individual. And the social practice of aggressive individual lead the development of the new democracy. In this process, the change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is provided by networked society combines and develop into the new democracy.

Key words : Social Media, Network, Social Movement, SNS, Network Cooperation

